

사회

‘잇단 성범죄’ 광주 초등 6곳 등하굣길 점검해보니 ...

학교 주변 순찰 ‘시늉뿐’

경찰, 대충 둘러보고 차 안에서 TV 보기도

학부모들 “순찰 경찰관 안 보여 불안해요”

여자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아동 성추행 등 어린이와 관련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경찰의 순찰은 겉돌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등교 시간대에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지켜보는 눈이 많아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지만 학교 시간대(오후 1시~4시)에는 인적이 드물어 납치 등의 범죄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 시간대에 거의 학교 주변을 순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서구 H초등학교 정문, 이날 광주 H초교 정문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여·37)씨는 “김수철 사건 이후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학교까지 매일 바래다주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서 순찰하는 경찰관을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시 동구 J초등학교 앞, 70대의 어린이안전 지킴이 노인 1

명만이 교문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20~30대 범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웠다. 학부모 임모(45)씨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해도 경찰관들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간혹 보였는데, 요즘에는 다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28일~29일 광주지역 6곳의 초등학교 등·하굣길(오전 7시40분~9시, 오후 1시~3시 30분)을 점검한 결과, 경찰관들이 형식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교 시간에 순찰을 나온 경찰관들은 학교 주변을 잠깐 둘러본 뒤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28일 오후 1시30분 동구 모 초등학교 주변에서 순찰하는 경찰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학교에서 600m 떨어진 주택가에 세워진 순찰차에서 휴대전화로 TV를 시청하는 경찰도 목격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수철 사건 직후 광주지역 범죄 노출 취약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아

동 성폭력 등 범죄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아동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체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일 현재 광주경찰청 전체 인력은 2830명 가운데 교통과·수사과·정보과 등의 근무자를 빼고 나면 순찰 인력이 거의 없어 광주지역 초등학교 145곳 주변을 제대로 순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 H초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 김모(여·39)씨는 “부모들은 김수철 사건으로 불안해하는데, 경찰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라며 “학교 시간대 등 취약시간 때만이라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취약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취약계층에 열무김치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임동 봉사관에서 독거노인·조손가족·어버이결연세대·취약계층 등 총 181가구에 전달할 열무김치를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출산과정 종양 발견 고민”

산모 신생아와 함께 투신

어제 광주 지산동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 고모(여·33)씨와 생후 9일된 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119

와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고씨의 딸은 이복보에 싸인 채 현장에서 숨져 있었으며, 고씨는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광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1시에 숨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둔탁한 물체

가 떨어지는 소리가 1초 간격으로 2번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고씨와 아이가 주차장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5층의 고씨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씨가 베란다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뒤 뒤따라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결혼한 고씨가 출산 과정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돼 고민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신변을 비판해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경찰 총경급 간부 269명 인사

경남 산청서장이 임명됐고, 수사과장으로 정성기 전북 김제서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는 김수을 장흥서장이, 청문감사담당관에는 윤명성 경찰청 소속 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한기민 전남청 정보과장은 여수서장으로, 류복열 전남청 수사과장은 담양서장으로, 임광문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강진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학청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은 영암서장으로, 오영기 제주청 정보과장은 장흥경찰서장으로, 박승주 광주청 수사과장은 해남경찰서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한편,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던 김철성 해남경찰서장은 이날 사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서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서장이 임명됐고, 수사과장으로 정성기 전북 김제서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는 김수을 장흥서장이, 청문감사담당관에는 윤명성 경찰청 소속 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한기민 전남청 정보과장은 여수서장으로, 류복열 전남청 수사과장은 담양서장으로, 임광문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강진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학청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은 영암서장으로, 오영기 제주청 정보과장은 장흥경찰서장으로, 박승주 광주청 수사과장은 해남경찰서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한편,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던 김철성 해남경찰서장은 이날 사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서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텔런트 박용하 자살

자택서 목 매 숨진채 발견



텔런트 겸 가수인 박용하(33)씨가 지난 달 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캠퍼더 충전기 전선으로 목을 맸으며, 자필로 작성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위암 말기인 아버지의 등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가족에게 ‘미안해 미안해’하고 말하고 자정을 넘겨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원침 (8061) 김장독



보일러실에 신생아 버려져

지난달 30일 낮 12시50분께 장성군 북이면 장모(60)씨의 집 보일러실 바닥에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장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신생아는 발견 당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싸여 있었으며, 탯줄도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광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교도소 동기와 싸고 아버지 물건 훔쳐



○...절도죄로 만기 출소 후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와 싸고 아버지가 모아둔 폐지를 내다 팔아 이용비로 쓴 찰부지 아들이 경찰서행.

○...지난달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2)씨 등 2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아버지(62)의 1t 화물차를 몰래 몰고 가 화물간에 실린 폐지를 다른 고물상에 내다파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폐지를 훔쳐 판 혐의.

○...지난해 10월 출소한 박씨는 광주교도소에서 만난 이모(30)씨와 범행을 공모했는데, 경찰에서 “유형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alee@

월드컵 “대~한민국” 외치는 사이

여중생 성추행 50대 구속

순천 길거리 응원장서

순천경찰은 지난달 3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참가

한 여중생을 성추행한 배모씨(52)를 성폭력 혐의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0시15분께 순천시 연향동 공영

주차장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의 16강 응원전에 참가한 중학생 A(14)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A양을 성추행한 뒤 응원장의 혼잡한 틈을 타 50m 가량을 달아났으나 현장 경비에 투입된 전경대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2003년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가 교도소에서 2년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청소년 선도위원이 초등학생 성추행

서울 동대문경찰은 지난달 29일 강아지를 보고 싶어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께 세들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빌라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생 A(12)양의 가슴 등

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아지를 놀고 싶어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온 A양과 A양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함께 간 뒤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동대문구의 한 사립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선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스

- 2011학년도 -

대학편입

매콤방학을 잡아라! 개강 7월 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이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편입영어

- 대학합격의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편입영어
- 이론과실전 - 기출문제 사근사근
- 실용과형식 - 유망별 문제풀이

편입수학

무조건 편입합격의 열쇠 = **매콤방학 이론/문제풀이** = 편입수학의 **정기/비정기/기/저분과별** 원전정예

TEPS대비반

- TEPS반 100% 합격률 보장
- TEPS반 100% 합격률 보장
- TEPS반 100% 합격률 보장
- TEPS반 100% 합격률 보장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o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문의) 222-8088, 227-8088